

NAJU
*Web
Contents*

2021년 09월 21일 08시 31분

목차

목차	2
벗	3
성운 (成運 : 1497 ~ 1579)	3
박계현 (朴啓賢 : 1524 ~ 1580)	3
휴정 (休靜 : 1520 ~ 1604)	3
유정 (惟政 : 1544 ~ 1610)	3
양대박(梁大樸 : 1544 ~ 1592)	3
백광훈 (白光勳 : 1537 ~ 1582)	4

성운 (成運 : 1497 ~ 1579)

자는 건숙, 호는 대곡(대곡), 본관은 창녕.

재야의 학자로서 인품이 고결한 인물. 보은 속리산 자락 종곡리에 은거하였다.

대곡은 백호의 호방한 기운과 자유로운 태도를 포용하여 안정하도록 지도한 참 스승이었다.

"소년 때 확실히 공부하였고 시를 지으며 땅에 떨어진 쇠소리가 나더라.

이별한 후에도 서로 대면함과 같으니 좋은 밤 밝은 달이 마음속에 떠 있는 것과 같다."

- 대곡 성운의 백호 임제에 대한 말 -

관련작품 : 백호전집 수록 오언장편시 '대곡선생 만사'

박계현 (朴啓賢 : 1524 ~ 1580)

본관 밀양(密陽). 자 군옥(君沃). 호 관원(灌園).

명종 때 문과에 급제, 병조판서에 이르는 인물. 관원유고 가 있음.

박계현은 그의 전라도 관찰사 시절에 포의였던 임제와 교유를 맺은 이후, 25세 연상인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임제의 가장 막연한 지기(知己)가 되었다.

관련작품 : 백호전집 수록 오언근체 '탄관의 시'

휴정 (休靜 : 1520 ~ 1604)

서산대사 호는 청허(淸虛).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이끌고 한양 수복에 공을 세웠다.

백호는 북도평사 시절 묘향산으로 서산대사를 찾아가 만나 나이와 종교를 초월한 사귀를 가졌다.

"산새 한 마리 울지 않는 곳에서 두 사람 마주 앉아 한가롭다."

- 성불암에서 휴정노승을 맞아 이야기하다 -

유정 (惟政 : 1544 ~ 1610)

사명당(四溟堂). 자는 이환(離幻), 호는 송운(松雲), 종봉(鍾峯).

임진왜란 때 승군을 거느리고 왜군을 물리쳤으며, 전후 일본에 가서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포로로 잡혀간 동포들을 데려오기도 했다.

백호는 유정을 '공문의 친구'(空門友)라고 일컬었음.

관련작품 : 백호전집 수록 오언근체 '처영에게'

양대박(梁大樸 : 1544 ~ 1592)

본관 남원. 조선 중기의 의병장. 자 사진(士眞). 시호 충장(忠壯).

호 송암(松巖), 죽암(竹巖), 하곡(荷谷), 청계도인(靑溪道人)

저서 <청계집>

학관(學官)으로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가재를 털어 의병 약50명을 모아, 전라도 담양(潭陽)에서 고경명(高敬命)을 맹주(盟主)로 삼고 5월에 군사를 동원하였다. 전주()에서 의병 약 2000명을 모았으나, 의병 모집 때의 과로로 발병하여 진산(珍山)의 진중에서 사망하였고, 이후 정조 때 병조판서의 관직을 받았다.

백광훈 (白光勳 : 1537 ~ 1582)

전남 장흥 출생.

본관 해미. 호 옥봉(玉峯)

주요작품 <홍경사 弘慶寺>, <용강사 龍江詞>, <달랑행 達梁行>

저서 <옥봉집>

조선 중기 시인. 명나라 사신에게 시와 글을 지어주어 감탄케 하여 백광선생(白光先生)의 칭호를 받으며 팔문장(八文章)의 한 사람으로 인정 받았다.

최경창(崔慶昌)·이달(李達)과 함께 출세나 학문보다 오직 시학을 전공하여 우리 문학사상 특이한 유파를 형성한 삼당시인(三唐詩人)의 칭호를 들었다.

여러 지방을 찾다니며 시를 지었는데, 주로 전라도 지방에서 많이 모였고, 시의 정서면을 중시하며 좀 더 낭만적이고 풍류적으로 쓰려고 했다.

임제(林悌)·허봉(許愼)·양대박(梁大樸)·고경명(高敬命) 등과 자주 어울려 시를 엮었다.

NAJU

Web Contents

